

2025.2.19
정책금융기관 조기집행 점검회의

인사 말씀

2025. 2. 19. (수) 11: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정책금융기관 조기집행 점검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5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참석하여주신 신유근 수출입은행 부행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구조고도화에 따라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하는 등 경제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경기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물경기 회복속도가 늦춰지면 중소·중견기업 등
우리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만큼,

재정과 정책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활력 제고에 역할을 해야합니다.

정부의 역대 최대 신속집행 기조*에 맞추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의 상반기 중 자금조기집행을
금년도 핵심추진과제* 중 하나로 삼아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 중앙재정의 67%, 지방재정의 60.5%를 상반기에 신속집행

** '25.1.8일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경제 1분야)

II. 조기집행 추진 경과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월 14일까지 총 33.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전년대비 무려 17%(4.9조원) 빠른 속도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길었던 설 연휴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빠른 집행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년도 동기간에 비해
2조원 이상 빠른 속도로 집행 중인 수출입은행*이나
어려운 수출여건에 대응하여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모범사례라 할 것입니다.

* 수은 1.1~2.14일 자금집행: ('23년) 8.0조원 → ('24년) 6.9조원 → ('25년) 9.6조원

** 신보 수출기업 보증지원: ('24.1월) 3,696억원 → ('25.1월) 4,481억원(약 21.2%↑)

각 기관은 조직 단위별로 일일 실적점검과
본점차원의 지원가능기업 안내 등 현장 독려를 강화하고
우대금리 프로그램 조기도입 등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금조기집행에
협조해주신 정책금융기관 및 현장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Ⅲ. 조기집행 추진 계획

2월말을 거쳐 3월부터는
산업현장에서 각 기업의 재무제표가 확정되고
본격적인 설비투자가 시작됩니다.

산업현장에도 새 봄의 활기가 가득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①5개 정책금융기관은 1분기 중 88조원을 공급하고
특히 4월말까지는
예년수준 대비 13조원 이상 확대된
122조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 공급계획의
60% 이상을 상반기 내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②지분투자를 위한 정책펀드의 결성시점도 빨라집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연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는 회계연도 시작 前인
작년 12월 조성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 정부예산안 확정직후인 '24.12.24일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조성계획 발표

지난 주(2.10일)에는 자금조성의 첫 단계*인
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쳤습니다.

* 모펀드 운용사 모집공고·선정 →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선정 → 민간자금 모집

펀드 조성이 예년대비 두 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만큼
산업현장에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혁신성장펀드 모펀드 운용사 선정시기: (23년) 3.31일 (24년) 4.5일 (25년) 2.10일

IV. 맺음말

오늘 간담회가 기관 간에
조기집행을 위한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의견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